

전주 시기 박봉우 시의 병리적 미의식 연구*

문 신(우석대)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2. 새로운 분단의 땅, 광주 |
| 2. 병리의 내적 기원, 분열 | 4. 결핍(hypo)으로서의 생활인 윤리 |
| 3. 과잉(hyper)으로서의 사회역사적 윤리 | 4.1. 아내의 죽음, 여백이 된 생활 |
| 3.1. 고착화된 분단 현실 | 4.2. 자아의 분열, 정신병원의 세계 |
| | 5. 나오며 |

국문초록

이 글은 박봉우의 전주 시기 작품에 나타난 병리적 특성을 역사의식의 과잉과 윤리의식의 결핍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과잉의식이 드러난 시는 역사적 인식론과 관련되는 작품들이고, 결핍의 특성이 드러난 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의 존재론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박봉우 시에서 과잉된 것은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이다. 그는 초기시부터 줄곧 분단문제를 제기하면서 ‘휴전선’으로 상징되는 경계에서 사회역사적 윤리를 ‘피’의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그러나 과잉된 윤리를 감당하기에는 박봉우의 자의식이 미약했다. 사회역사적 윤리가 생활에서 비롯되어야 하지만, 박봉우의 생활은 과잉된 자신의 윤리의식을 지탱하기에는 생활인의 윤리가 결핍되어 있었다. 실제로 전주 시기의 박봉우는 자폐적인 상태에서 살았으며, 정신병원을 들고나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 이 논문은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됨.

이렇듯 전주 시기 박봉우의 시는 정상성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방식으로 병리적 증상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박봉우는 현실 세계보다는 ‘다른 세계’를 낭만적으로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박봉우의 병리적 미의식은 그의 낭만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박봉우, 과잉, 결핍, 병리적 미의식, 전주

1. 들어가며

박봉우는 현실에서 언제나 깨어 있는 시인이었다. 전쟁 직후, 혼란했던 역사의 한복판으로 시 「휴전선」을 투척한 후, 그것의 폭발력을 박봉우는 전 생애의 시적 동력으로 삼았다. 그는 ‘휴전선’을 분단과 분열의 상징으로 보았고, 민족의 분단 상황을 “불안한 얼굴”, “야위어가는 이야기”, “독사의 혀”의 이미지로 현상해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시대사적인 현실 진단은 박봉우 개인의 병적 증상과 결합하면서 병리적 증상을 드러내는 시를 창작하게 했는데, 박봉우의 병리적 증상은 언제나 낭만적 포즈를 동원하였다.

박봉우의 병리적 증상과 낭만적 포즈는 시 「나비와 철조망」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벽,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¹⁾에서 ‘나비’는 ‘피로 적신 날개’에서 보듯, 그 자체로 이미 병적 증상을 지니면서 ‘벽’을 넘어 ‘날아야만’ 하는 낭만적 운명의 존재이다. 이에 대해 노용무는 “시인은 ‘나비’를 ‘꽃밭’에 보내기 위해 날려보냄으로, ‘나비’는 시인의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분신이 된다”라고 하면서, 피로 적신 나비의 날갯짓은 “여로의 종착지 ‘꽃밭’을 향한 시인의 열정이며, 분단시

1) 임동화 엮음, 『박봉우 시전집』, 현대문학, 2009, 54쪽. 이후 『전집』이라 하며, 『전집』에서 인용하는 시는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대를 살아야 하는 지식인의 비판의식의 소산”이라고 적절하게 해명한 바 있다.²⁾

분단현실을 실증하는 현장인 ‘휴전선’이 박봉우에게 역사의 병리적 증상을 제기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낭만적 세계로 수용된 것은, 분단이라는 현실 자체가 박봉우에게 시적 실존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시에서 실존 공간은 시인과 사회역사적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장(field)이다. 그곳에서 시인은 존재하고 또 인식하는 주체가 된다. 그런데 휴전선은 경계적 공간이기도 하다. 박봉우 시에서 “경계적 공간은 역사적 현실 인식과 함께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³⁾ 곳이다. 김경복은 박봉우 시의 경계적 공간에 대해 “현실과 또 다른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나 ‘꽃밭’ 같은 과도기적 공간”으로 “불안한 현실에 대한 내면적 심리가 투사된 것으로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공간 역전 심리와 현실과 이상의 변증법적 양상으로 나타난다”⁴⁾라고 하여, 박봉우 시에서 병리적 낭만의 혐의에 동의하고 있다.⁵⁾

김정현은 “박봉우의 텍스트는 역사 속에서 드러난 욕망, 일정한 담론으로 새겨진 권력체계를 관통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단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의 시적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면서, 단절을 통한 경계적 공간 인식이 후기시에 와서야 “찾아 헤맸던 모든 고향은 사실 어디에나 있고, 모든 안정은 불안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일종의 ‘경계의 자기서사’를 완성”⁶⁾했다고

2) 노용무, 「박봉우 시의 ‘나비’ 이미지 연구」, 『어문론집』 28, 중앙어문학회, 2000, 233쪽.

3) 김경복, 「박봉우 시의 실존 공간 연구」, 『인문논총』 제32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92쪽.

4) 위의 글, 92~93쪽.

5) 김효신은 박봉우의 시를 ‘개인병리의 표출’과 ‘사회병리의 표출’로 구분한 후, 개인병리의 표출은 ‘질병의 부정과 죽음’, ‘외부와의 단절’, ‘긍정적인 자세’로 나누었고, 사회병리의 표출은 ‘분단과 통일문제’, ‘사회참여’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적 소재를 통계적으로 접근할 뿐 박봉우 시의 병리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김효신, 「한국 현대시의 병리적 현상 연구: 한하운, 김광섭, 박봉우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97, 59~86쪽.

6) 김정현, 「박봉우 시에 나타난 경계의 자기서사와 저항 윤리 연구」, 『서강인문논총』 47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324쪽.

강조했다. 이러한 시적 인식은 안정과 불안의 경계 기능을 불구화하는, 다시 말해 사회역사적 통념을 깨뜨림으로써 박봉우는 그러한 역설을 자기서사로 하는 저항의 윤리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박봉우의 분단 극복 의지는 단순히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적 삶의 문제와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까지 확대”⁷⁾해 간다. 이것이 박봉우의 저항 윤리가 사회역사적 통념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전주 시기 박봉우 시의 병리적 특성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시가 통념과 맞서는 저항의 윤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항은 기성 윤리를 해체하는 것이면서 새로운 윤리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성 윤리는 비윤리적인 것이 되고, 새로운 윤리는 거듭 반윤리적 가능성이 된다. 따라서 저항의 윤리는 윤리의 갱신과 윤리의 보완 매커니즘 속에서 작동하고, 이것은 명백히 병리적이다. 병리 현상이 의미론적으로 부재나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hyper(과잉)나 hypo(결핍)의 문제이기 때문이다.⁸⁾ 문제는 병리 현상과 짝을 이루는 정상 상태가 특정한 가치에 연결되어 발현되므로⁹⁾ 정상성의 가치를 해명할 수 있을 때 과잉과 결핍의 양상을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박봉우에게 정상성으로 작동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박봉우가 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 가치의 하나로 그가 등단 초기부터 줄곧 관심을 기울여 온 역사적 윤리를 제안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주 시기에 박봉우가 발견한 생활인으로서의 윤리이다. 이 두 윤리적 가치가 정상의 범주를 벗어날 때 박봉우 시의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상성은 박봉우의 경우 사회역사적 통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주 시기 박봉우 시의 특징을 하이퍼와 하이포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이퍼적 특성이 드러난 시는 역사적 인식론과 관련되는 작품들이고, 하이포적 특성이 드러난 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의 존재론적 문제라는 점을 미리 밝힌다.

7) 전동진, 「박봉우 시의 텍스트사회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98쪽.

8) 조르주 깡길렘,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인간사랑, 1996, 53쪽.

9) 위의 책, 69쪽.

2. 병리의 내적 기원, 분열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휴전선」이 당선된 후¹⁰⁾ 박봉우는 시집 『휴전선』(1957)과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1959)를 펴냈다. 이들 시집을 통해 그는 “인간이 지니는 감성과 지성의 아름다운 균형을 바라는 것이 예술의 궁극목적이라면 이 시인의 현재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게 한다.”¹¹⁾ 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정신 이상 증상을 드러낸다.

박봉우의 제3시집 『사월의 화요일』(1962)에 실린 발문 성격의 제3부 ‘시와 우정과 영혼의 대화’ 속의 한 산문에 의하면, 그가 처음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인 것은 1960년 6월경으로 추측된다. 평소보다 초점을 잃은 공허한 눈동자에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증세를 보여 지인들이 서둘러 C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기록이 나온다. (...중략...) 그 기간 동안 후일 ‘정신병원에 피는 창백한 시집’이란 이름하에 그의 제3시집 1부를 차지하고 있는 ‘소묘’라는 연작시를 써나가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¹²⁾

시집 『사월의 화요일』은 4·19가 발생했던 1960년 4월 19일 화요일과 연관된다. 이 시집에서 그는 “사월의 피바람도 지나간 수년의 도심”을 바라보면서 “여기도, 저기도, 병실”(「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이라고 하여, 시대적 병리현상을 목격한다. 이어지는 「소묘」 연작에서는 병증과 병원, 병실 같은 시어들을 직접적으로 동원하고 있는데¹³⁾ 이러한 병리적 인식은 “우리의 숨

10) 박봉우는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학생 시절에 ‘진달래’ 동인을 결성해 활동했고, 고등학생 때는 청소년 잡지 『학원(學園)』의 단골 투고생이었다. 당시 『학원』은 청소년들의 문예적 감수성과 문학적 역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장이었다. 박봉우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8살(1952년)에 시 「石像의 노래」가 『주간 문학예술』에 당선되기도 했다.

11) 전봉건, “박봉우 시집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동아일보, 1960. 2. 6.

12) 임동환, 「황지의 풀잎과 광기의 시학: 박봉우론」, 『전집』, 453쪽.

13) “은 육체에 깊이 멎는 것이/토할 듯, 토할 듯, 토할 듯”(「소묘1」), “병들어 누워 있는/나의 종교는.”(「소묘3」), “병원에/한 자루 연필과/한 권의 공책을 가지

막힌 푸른 4월은/자유의 깃발을 올린 날//(...중략...)//시인도 미치고/민중도 미치고/푸른 전차도 미치고/학생도 미치고//참으로 오랜만에/우리의 얼굴과 눈물을 찾았던 날.”(「소묘33」)이나 “푸른 병정도/푸른 전차도/사월의 전쟁에서/형제를 위하여/가슴이 무너지도록 울었던/벽과, 철조망들이여.”(「소묘36」)에서 알 수 있듯 4·19 경험에 근거한다. 박봉우에게 4·19는 “녹슬고 멎든 총알에 찢겨/자유란 모국어로 화산이 된/피와/불의/화요일.”(「참으로 오랜만에」)로 각인되어 있었다. 이렇게 박봉우가 진단한 ‘피와/불의/화요일’은 정상성을 벗어난 병리적 세계이다. 이 세계는 “나는 오늘도 잠을 못 자는/약보다도 술이 없으면 더욱/잠을 못 자는 지성을 앓고 있는/정신병자/이런 처참한/공동묘지에 살고 있다.”(「지성을 앓고 있는 공동묘지」)에서 보듯, 공동묘지의 세계이며, 박봉우는 스스로를 그곳에 살고 있는 정신병자로 인식한다.

그럼에도 박봉우는 그가 나아가야 할 시적 지향점을 잃지 않았다. 「후전선」에서부터 줄곧 분단의 아픔을 떠올리며 조국통일을 염원했던 그는 엄혹한 군사독재의 그늘에서 늘 폭발 직전의 삶을 살았다.

그로 인해 그의 정신 상태는 정상과 비정상을 반복하였고, 급기야 정신병동에 감금되는 사태를 맞았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조국과 민족의 비운에 분노하면서 “머리를 앓고 사는 사람들”(「정신병원」)의 병후를 걱정하는 한편,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무덤 같은 잠”(「죽은 듯 눈 감고 싶다」)을 청하며 인생무상을 타하기도 했다. 더욱이 마땅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부인과의 사별은 그의 내면에 심한 죄책감을 각인시켰고, 그는 스스로 “蒼白한 病室의 美學者”(「겨울에도 꽃피는 나무」)로 자처하면서 무능한 가장으로서의

고.”(「소묘6」), “잠이 오지 않는/병실의 시계는”(「소묘10」), “창이 그리운/병동의 밤.”(「소묘16」), “은 영혼을 불태우고 싶은/회색 병동.”(「소묘19」), “병원의아침은/건강한 신문이/기다려진다.”(「소묘26」), “얼굴의 수염을 뽑으며/병동의 겨울을 찾아보는/무더운 공휴일.”(「소묘31」), “병실 밖엔/황홀한 새의 음악이/저와 같이/고독하다.”(「소묘35」), “고독은/나의 병원의/음악에 젖는/실내악”(「소묘42」) 등의 시들이 그렇다.

고독과 시대와 화합하지 못하는 시인의 고독을 동시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남긴 후기시편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되는 정서는 삶의 공허감이다.¹⁴⁾

이와 같은 정신의 분열, 생활의 불능, 다른 사람들과의 불감 등이 반복되는 동안 박봉우의 서울살이는 점점 고달픈 방향으로 미끄러져갔다. 이 과정에서 ‘공동묘지’와 ‘정신병자’는 그의 시가 기원하고 있는 병리적 특성의 하이퍼적 속성과 하이포적 속성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의 눈에 공동묘지는 언제나 죽음의 과잉(hyper) 있었다. 그곳은 “사랑하는 사랑할 뿐인/공동묘지의 창백한 얼굴들”로 가득했다. 이러한 공동묘지의 이미지는 그가 『휴전선』에서 그려냈던 분단 조국과 4·19의 폭압을 목격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박봉우의 역사적 윤리였다. 그는 윤리적인 역사, 윤리적인 민족, 윤리적인 사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휴전선』)에서 감지되는 박봉우의 화법에는 분단 현실에 대한 강한 역사적 윤리가 담겨 있다. 문제는 그의 시에서 이러한 윤리가 사회역사적 현실 조건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결과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낭만적 포즈로 무장한 유토피아적 동경¹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신병자’라는 자기 인식은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첫 시집 『휴전선』과 두 번째 시집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에는 「사랑 뒤에 오는 여백」이라는 같은 제목의 시가 실려 있다. 『휴전선』에 실린 시에는 “사랑 뒤에 이별이란/슬픈 것이네 저녁 들녘 같은 것/내 마음의 눈물이라네.”라고 하여 사랑의 결핍에서 슬픔과 눈물을 발견해낸다.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에 실린 시에서는 “옥이의 이야기는/옥이의 눈물은/옥이의 기다림은//내 거치른 광풍 같은 사랑이 모두 지난 뒤에도/단 하나 남을/영원하고 슬프고 고운 것이네”라고 하여 슬픔보다는 기다림을 더 강조한다. 사랑에 대한 박봉우의 지향

14) 최명표, 「최명표의 전복 작고 문인을 찾아서(30)-‘휴전선’의 시인, 박봉우」, 전북일보, 2011. 9. 26.

15) 임동환, 앞의 글, 442쪽.

은 세 번째 시집 『사월의 화요일』에서 “내 정신이 문혔/내 이름이 죽을 묘지에/머언 먼 날 사랑이 넘칠 강이여/나는 지금 너희들이 오면 대답할 수 있는/공동묘지에서/신록 같은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지성을 앓고 있는 공동묘지」)를 통해 미래의 시점으로 낭만화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여기’라는 실존적 시공간은 사랑이 결핍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봉우 시의 병리적 현상은 인식론적 과잉(hyper)과 존재론적 결핍(hypo)에 근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주 시기 그의 시는 하이퍼와 하이포의 병리적 특성을 가장 명징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전주는 ‘휴전선’ 혹은 ‘철조망’으로 상징되는 경계 공간이었고, 전주에서 그는 ‘피로 적신 날개’를 지닌 한 마리 나비였다. 그의 피는 역사적 윤리에 상처 입은 결과였고, 그의 날개는 존재론적 상처를 위무하고 치유해 줄 낭만적 동경의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 이때 그가 지향했던 세계는 그가 청소년기를 보낸 ‘광주’였다. 전주는 서울과 광주의 경계에 철조망처럼 놓여 있었던 것이다.

3. 과잉(hyper)으로서의 사회역사적 윤리

1975년 전주로 거처를 옮긴 이듬해, 박봉우는 세 번째 시집 『황지의 풀잎』을 내놓는다. 이 시집은 박봉우가 전주에서 펴낸 첫 번째 시집으로, 그의 시적 행보에서 전반부(서울 시기)를 마감하고 후반부(전주 시기)를 준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것은 서울 시인에서 전주 시인으로 월경(越境)해가는 도상에 놓여 있으면서, 그 스스로를 분단 조국의 ‘황지’에 핀 힘없는 ‘풀잎’ 시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이었다.¹⁶⁾

16) 조태일 시인은 『황지의 풀잎』 편집후기에서 이 시집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놓았다.

“이 시집은 3부로 편집되었다. 제1부와 제2부는 1962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15년 남짓 사이에 발표한 것들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거의 빠짐없이 모아서 발표연대와 역순으로 꾸몄으며 (...중략...) 이로써 우리들은 박봉우 시인의 시들을 힘 안

그러나 박봉우의 전주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은 시선집 『서울 하야식』(전예원, 1986)에 실린 13편의 신작시와 『딸의 손을 잡고』(사사연, 1987)에 실린 시들이다.¹⁷⁾ 이 장에서는 이들 두 시집에 실린 시들 가운데 등단작부터 줄곧 견지해 온 분단 현실과 사회역사적 윤리를 다루고 있는 시편들의 병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고착화된 분단 현실

박봉우는 ‘휴전선’의 시인이기도 했지만 김수영, 신동엽 등과 더불어 4·19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인이다.¹⁸⁾ 이러한 평가는 박봉우가 사회역사적 현실을 향해 시적 긴장감을 첨예하게 세워놓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단된 조국 현실이나 정치사회적 자유 이념을 시적 지향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일이다. 사후에 발표된 「녹슨 철로」를 보면 그의 시적 지향이 한 순간도 분단된 조국 현실에서 비켜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시는 박봉우의 초기시인 「나비와 철조망」과 상호텍스트적으로 읽히는 데, “가지도/오지도 못하는 곳/무슨 이유로 그럴까/녹슨/철로 위에/한 마리의/평화로운 나비/녹슨 철로 위의/이슬을 먹으며/어데론지 어데론지/날아가고 있었다”(「녹슨 철로」)에서 보듯 ‘휴전선’과 등가를 이루는 ‘철조망’의 이미지가 ‘녹슨 철로’로 대치되어 나타난다. 다른 점이 있다면,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나비와 철조망」)가 “평화로운 나비”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그 나비가 “녹슨 철로 위의/이슬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럴 때 ‘나비’는 박봉우의 사회역사적 윤리를

들이고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얻었음과 동시에 이 시집을 통하여 전쟁과 폐허의 50년대를, 독재와 혁명과 좌절의 60년대를, 긴장의 풍요와 정신적 빈곤의 70년대 전반을 한 시인이 어떻게 몸부림하며 부딪쳐왔는가를 역력히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박봉우, 『황지의 풀잎』, 창작과비평사, 1993, 143쪽.

17) 시선집 『서울 하야식』은 1부와 2부에 『휴전선』,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사월의 화요일』, 『황지의 풀잎』에서 선별한 작품을 실었고, 3부에 신작 13편을 수록하고 있다.

18) 정영진, 「중립의 감각·생명·자유: 1950·1960년대 박봉우 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252쪽.

시적으로 실현하는 존재가 된다.

이렇듯 전주 시기 박봉우의 시는 등단기로부터 이어진 사회역사적 이념과 윤리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역사적 윤리를 형상화하는 방식에서 초기시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음 시에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도/오래되었다./새와/나비들은/백두산으로/한라산으로/
가고 오고 하지만/우리의 피맺힌 한은/이루어지지 않았다./언제고 간에/벽이
무너지긴 하지만/우리는 지금/가슴을 앓고 있다./녹슨 철로 위에/햇살이 부실
때까지……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 전문(『서울 하야식』)

서울 시기의 「휴전선」, 「나비와 철조망」, 「수난민」, 「황지에 꽃핀」 등 남북 분단의 현실을 다룬 시편들에서 눈에 띄는 것은 ‘피’다. ‘유혈’, ‘핏줄’ 같은 피의 이미지를 통해 분단 조국의 병리적 현실을 강조했던 박봉우는 전주 시기에 와서는 그 핏빛 이미지를 환상으로 처리해내고자 한다. 이 시에서 “햇살”은 핏빛의 원색을 지워내는 역할을 한다. “짙은 원색으로/사랑을 읽을 때/여기는/두 동강이 난/땅이었다/(…중략…)/많은 세월은 흘렀다/짙은 원색으로/사랑을 읽을 때/아픈 가슴은/헤아릴 수 없었다”(「시인들은 무엇하는가」)에서 보듯 ‘원색’은 분단 현실을 직시하게 했고, 그 현실의 아픔을 환기했다. 박봉우의 이러한 원색적인 사랑, 다시 말해 과잉된 사랑이 분단 현실을 “피맺힌 한”으로 인식했다. “나는 떠난다/눈물도 말라버린/조선의 창호지에/피를 피를 토한다”(「악한 세대」), “한 마리 나비는 날지 못하고/피투성이 된 채로/확 트인 하늘을 우선/그리워한다”(「휴전선의 나비」, 『딸의 손을 잡고』), “피 어린 역사 속에서/우리는 5천 년을 살아온/백의였다”(「분단아!」, 『딸의 손을 잡고』) 등 박봉우에게 피의 이미지는 분단 현실의 감각적 형상이 되었다.

이러한 병리 현상을 극복하는 일은 박봉우에게 ‘빛’이었다. “이 커다란 아

품을 견디는/돋아난 풀잎들/양지여 쏟아져라”(「분단에서」), “슬픔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이 얼룩진 땅/사랑의 이야기를 나눴시다/양지바른 햇볕 밑에서/ 고향에 무어라 띄울/부끄러움 없는/편지를 생각해봅시다”(「분단기」), “우리는/모두 노래하자/90년대의 이 땅은/화창한 봄날 같은/햇살이/너와 나의/가슴에 퍼져 가리라고”(「1990년의 노래」)에서처럼, 빛을 통해 피를 희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거창한/한 뿌리를 위해서/우리는/죽어도 피를/흘려서는 아니 된다/칠색/무지개의 야망을/위하여/피, 피를 흘려서는/안 된다”(「우리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창작과 비평」, 1990 여름호)라면서 박봉우는 “칠색/무지개의 야망”을 통해 피의 서사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렇듯 전주 시기 박봉우의 시에서 빛은 그의 병리적 증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랑은/푸른빛으로부터/일곱 빛 무지개”(「오로지 사랑은 하나」, 『딸의 손을 잡고』)에서 보듯, 빛은 사랑의 현현 혹은 계시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빛은 “칠색/무지개의 야망”, “일곱 빛 무지개”처럼 자주 과잉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점들을 보면, 분단 현실에 대한 박봉우의 시에서 “짙은 원색으로/사랑을 읽”어 내고자 한 것이나 “남과 북이 무지개보다도/아름다운 대화로/통일될 수 있는 힘”(「분단된 조국 앞에서 우리는」)에서처럼 과잉된 빛으로서의 ‘무지개’라는 사회역사적 윤리의 과잉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과잉이 그의 시에서 피와 빛이 교차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3.2. 새로운 분단의 땅, 광주

“술 한 잔 먹고 갈라고 왔어야.’ 선생은 광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중략...) 광주로 내려가던 길에 술 한 잔 먹고 가겠다고 들른 전주가 여생동안 선생의 고향이 돼버렸다”¹⁹⁾고 한 것을 보면, 박봉우는 애초에 서울을 떠나 광주로 갈 계획이었다. 광주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그에게 광주는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를 보낸 곳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팍/산자락이 온 누리를 펴고/우리는/(...중략...)/무등에

19) 백학기, 『가슴에 남아 있는 미처 하지 못한 말』, 도서출판 더클, 2015, 368~369쪽.

서/무등에서 만남시다”(「무등에서 만남시다」, 『서울 하야식』)에서 보듯, 박봉우는 높고 낮음을 다루지 않고 차별 없는 ‘무등’의 광주를 남북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장소로 보았다. “겨울 잠에서/깨어난/무등이/어깨를 편다/봄, 봄은/무등에서부터/온다”(「무등산의 봄」, 『서울 하야식』)라고 하여 박봉우는 무등, 즉 광주를 분단 현실을 상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낭만적 세계로 본 것이다.

그러나 1980년 봄을 지나면서 광주는 새로운 분단의 땅이 되고 말았다. “나는 당분간/광주를 가지 않으려나/피바다가 되어도/피바다가 되어도/나는 바보처럼/웃고만 있었다”(「광주」)처럼, 1980년 봄날의 광주 앞에서 박봉우는 “바보처럼”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박봉우는 무등 혹은 광주의 상실 앞에 “고향은 무덤/가을빛 짙은 바다뿐이다/갈라진 가슴팍에/무성한 꽃들이 피어날 때/나는 모국어를 가다듬고/또다시 우렁찬 시를 써야 할 것이다/지금은/문을 굳게 닫고/모든 악수와 사절하면서/녹슨 식칼을 갈아야 할/녹슨 철로 위에 나르는/한 마리 나비일 뿐이다”(「고향은 없나」, 『딸의 손을 잡고』)라면서, 그가 분단된 조국 현실을 시로 써냈던 것처럼 광주를 위해 “또다시 우렁찬 시를 써야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의 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²⁰⁾ 박봉우는 1980년 광주를 1950년대의 휴전선과 같은 맥락에서 인식한다.

모란이 피는 오월/나는 시인은/침묵을 지키려나/역사/그는 이야기하리라/불타는 가슴/불타는 가슴/오로지/침묵으로 참으리라/내가 다시/무등에 충창조에/돌아가 사는 날/오랜 역사 앞에/사랑하는 오직 광주를 사랑하는/시인은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내 고향 광주를 아직은 노래하지 않으려나」 전문

20) 이어지는 “우리가 가야 할/고향을 찾는 나비/영원한 시와 조국을 위하여/피 흘리는/거기에 한 무덤이며” 구절에서 박봉우는 스스로를 ‘나비’로 인식한다. 박봉우에게 “나비는 분단 현실에 놓여 있는 신세대로 자처한 시인의 이상과 동경이 투영된 이미지”(노용무, 앞의 글, 230쪽)였던 것이다. 박봉우의 초기 시부터 줄곧 “영원한 시와 조국을 위하여 피 흘리는” 일을 ‘나비’의 운명으로 삼고 있었다.

『휴전선』에서 이미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라는 화법을 통해 낭만적 긍정의 세계를 지향한 박봉우는 상실된 고향으로서의 광주도 마땅히 회복되어야 하는 세계로 인식한다.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휴전선』)이라는 믿음처럼, 위 시에서도 “다시/무등에 총장 로에/돌아가 사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러한 낭만적 긍정은 “불타는 가슴”으로 상징되는 박봉우의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에서 비롯되며, 그럴 때 그의 윤리의식은 “불타는 가슴/불타는 가슴”처럼 언제나 과잉 상태를 유지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박봉우의 낭만적 긍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그가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박봉우는 “사랑하는 오직 광주를 사랑하는/시인”이지만, 그 앞에 “오랜 역사 앞에”라는 윤리적 단서가 붙어 있다. 1980년 광주로 인해 “절단된 가슴 밖에/피가 흐르”지만 박봉우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사랑만 사랑만 할런다”(『언제 고향에 가보려나』)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랑은 박봉우의 인식론적 기반이면서 윤리의식을 지탱하는 존재론적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봉우의 사랑은 세속적인 면보다는 종교적인 면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박봉우의 시에서 종교적인 면이 강조된 사랑은 그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썼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고등학교 교지 『광고』 3호에 실린 「마리아 상」은 “마리아! 아무 한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대만은 사랑하리라”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대만은”이다. 이 시는 그가 『광주』 2호에 발표한 「촛불의 노래」와 대응하는데, 「촛불의 노래」에서 “소녀 마리아! 당신의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으로 한 자루 촛불……촛불……/촛불을 켜주십시오”라고 하여 종교적 차원의 맹목을 간구하였다.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사랑의 윤리는 “바보라고 비웃어라 사랑의 패배자라고 비웃어라 (…중략…)// 너를 믿고 살아야 너를 믿고 살아야 하늘과 태양만 있으면 그뿐인 너를 믿고 살아야 (…중략…) 너를 믿고 이 목숨이 살아야” 한다는 「석상의 노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때의 바보 같은 ‘석상’은 1980년 광주를 향해 “바보처럼/웃고만 있”(『광주』)는 박봉우의 모습과 겹친다.

이처럼 박봉우는 “슬픔 고통 눈물/이런 것들이 얼룩진 땅/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시다”(「분단기」)라면서 1980년 광주마저도 사랑을 통해 낭만적 긍정의 세계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그의 사랑이 거의 종교적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이며, 박봉우 스스로도 “사랑한다는 것은/신화”(「신화 같은 이야기」)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무지개꿈이나 꾸어야지/그러, 미친 채로/무지개꿈이나 바보처럼/꾸어야지.//그것은/분명 신화인데…”(「신화」)에서 보듯, 신화는 ‘바보처럼/꾸’는 ‘무지개꿈’에 불과하다. 따라서 박봉우에게 사랑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세계를 향한 낭만적 태도였고, 박봉우가 자신을 두고 여러 차례 바보라고 인식한 것은 불가능한 세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박봉우의 과잉된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핍(hypo)으로서의 생활인 윤리

전주 시기 박봉우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펴낸 시집 제목을 『딸의 손을 잡고』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가족’의 발견이다. 분단 현실 속에서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을 뚜렷하게 보여 주었던 박봉우의 시는 가족을 발견한 이후 ‘생활인의 윤리’를 향해 나아간다. 사회역사적 윤리로부터 생활인의 윤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박봉우는 극심한 ‘고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고독은 그의 자의식을 이루는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고독할 뿐이다/그 누구도/만나지 않고/고독할 뿐이다”(「전주에 와서」)에서 보듯, 박봉우는 외부와 단절하면서 스스로를 자신의 생활 속으로 유폐시킨다.

이렇게 박봉우가 “모든 것에 외면한다”(「외면」),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다”(「고향은 없다」), “조용히 살려다”(「근신중」)라고 다짐하는 이유는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이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봉우는 “어테

로 가야 하나/어데로 날아가야 하나/피흘리며 찾아온 땅/꽃도 없다/(…중략…)/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고층빌딩이 아니다/그보다는 더 가난한 노래다”(「휴전선의 나비」)라면서 생활인의 윤리 즉, 가난한 삶을 향해 미끄러져 간다. 그리고 박봉우의 생활인 윤리는 ‘외로운’ 일이 된다.

문을 열었다/한 잔의 술이라도 있어야 할/밤이다/손님이 와서/얼마냐고 묻는다/그저 웃으며 대답한다/생활인의 기록이/유리에 비친다/외로운 개업/나는 그 곁에서/잠을 못 이룬다/첫인사도 없이 아득하기만 한/문을 지킨다/개업/한 송이 꽃을 들고 온 손도 없다.

—「외로운 개업」 전문

박봉우에게 생활인이 되는 일은 “아득하기만 한/문을 지”키는 일이다. 그 문으로 “한 송이 꽃을 들고 온 손도 없”고, 생활인으로서 “유리에 비친” 그의 자의식은 “외로”을 뿐이다. 짐작하다시피 그의 생활인 윤리는 그의 사회역사적 윤리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현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생활인으로서의 그의 윤리의식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1. 아내의 죽음, 여백이 된 생활

전주 시기 “전주의 도심을 휘감고 도는 천변에서, 도심공원인 다가공원에서 때로 선생은 홀로 시름을 달랬다. 도시의 불빛이 꺼지는 시각까지 천변에서는 생활비를 벌던 선생의 부인 고 이영미 여사가 포장마차를 지키고 있기도 했다. 장사 첫날 선생은 찾아오지 않는 손님들로 남아있는 술을 모조리 마셔버리고 대취했다. 당초 장사와는 거리가 먼 부인이었고 첫술에 배부를 리 없었지만 선생은 허전했던 것이다”²¹⁾라는 백학기의 회고와 시 「외로운 개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생활인 되기의 불가능성이다. 애초에 “장사와는 거리가 먼 부인”과 “첫술에 배부를 리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박봉우에게 생활의 ‘개업’은 생활과 동떨어진 외로운 일이 될 수밖에

21) 백학기, 앞의 글, 373쪽.

없다. 그런 까닭에 박봉우는 “얼마냐고 묻는” 손님에게 “그저 웃으며 대답” 하는 것으로 “생활인의 기록”을 남길 뿐이다. 손님과 소통을 거부하는 일은 그 자체로 생활인 되기를 거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박봉우가 생활인 되기에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깊다. 전주천변에서 포장마차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던 그의 아내는 1985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봉우에게 아내의 죽음은 생활의 죽음과 다르지 않았다.

피로운 나날이었다/아내 손은/우리 역사와 같이 망가지고/입술을 다물었다/
찾아오는 손님/가는 나그네/뜨거운 소주를 마시고/눈물을 글썽이며 가버렸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그 사람/한 잔의 술도 나누지 못하고/가버린 그 사람/그
사람의 소식을 기다리며/나는 술을 들었다/고통은 커다란 기쁨/언제고 간에
만나야 할 사람/겨울이면 나는 울었다/쫓겨가며/간절한 사연도 토하지 못하고/
간 그 사람을……

—「겨울 포장집의 아내」 전문

이 시에서 박봉우는 아내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되새김하고 있다. 그가 고통스러워 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역사와 같이 망가지고” 만 “아내 손”에 대한 기억이다. 그 “피로운 나날”을 견디는 힘은 “뜨거운 소주” 뿐인데, 술의 힘은 박봉우에게 “고통은 커다란 기쁨”이라는 역설적 인식을 가져다준다. 이 시에서 이러한 역설은 “찾아오는 손님/가는 나그네”의 시행을 통해 형상화되는데, 이러한 인식 속에 삶과 죽음의 순환이 담겨 있다. 그래서 죽은 아내는 “언제고 간에 만나야 할 사람”이 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속에서 박봉우는 ‘고통’을 ‘기쁨’으로 치환해낸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 생활인 되기에 실패했지만, 박봉우에게는 딸이 있었다. 딸은 박봉우에게 아내의 분신으로 인식되는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의 생활에 실패한 박봉우는 “내 생활은/이제/내 딸의 손을 잡고.”(「내 딸의 손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며, “이제/역사를 너와 함께/배우자.// (…중략…)//슬픈 것 감추고/아름다운 것만 들어내어/너에게 전하마.”(「내 딸

의 손을 잡고)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힌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지는 생활을 일으키는 의지라기보다는 “역사를 너와 함께/배우자”고 한 것처럼, 그가 오랫동안 강박처럼 지니고 있던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을 향한 의지에 가깝다. 그가 실패한 윤리의식을 딸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박봉우가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윤리의식은 “슬픈 것 감추고/아름다운 것만”이다. 분단 현실이나 419의 참담함, 광주의 봄 같은 ‘슬픈 것’을 향한 박봉우의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박봉우가 딸에게 ‘아름다운 것만’ 전해주고자 하는 의지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박봉우는 생활인 되기에는 실패했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는 박약했다. 박봉우는 “울고만 싶었다.//여백을/저만치 남겨놓고/울고만 싶었다.//너를/너를 보내놓고는”(「너를 보내놓고」)이라고 하여 아내의 죽음을 생활의 여백으로 간주했다. 전주 시기에 그의 시가 고독이나 외로움을 배경으로 종종 환상적인 세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생활을 여백으로 간주한 까닭이다. “인생은/초원에 쓰러지고/고독만 남아/길이 열린다/한 마리 양이/그림폭에 앉아/풀을 뜯는다/백지와 같이 고독하다”(「열쇠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한 마리 양’은 ‘그림폭’이라는 현실 저편 세계의 박봉우 자신처럼 보이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에는 ‘고독만’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업 외에는 달리 직업을 갖지 못한 그로서는 딸에게 시로서 발언할 수밖에 없었고, 행동에 나서기에는 그의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²²⁾라는 점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따라서 “초원에 쓰러”진 “인생” 자체가 이미 생활의 실패가 되고, 그런 까닭에 박봉우의 생활은 현실에서나 환상에서나 ‘백지’처럼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아내의 결핍으로부터 박봉우의 생활은 상실되고, 그는 그러한 하이포를 여백 혹은 백지 상태로 형상화한 것이다. 아내의 투병과 죽음은 박봉우에게 생활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결핍시킨 중요한 사건이었고, 박봉우는 이 사건을 통해 생활인 되기에는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가 “눈을 감으면/말해주지요/님은/사랑하는님은/꿈에 오지요/허허로운 조국의 별관에/님은

22) 최명표, 「혁명과 삶의 상관관계」, 『전북 지역 시문학 연구』, 청동거울, 2007, 330쪽.

눈을 감으면/오지요.”(「눈을 감으면」)라고 하면서, 눈을 감는 이유도 실패한 생활의 윤리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꿈이라는 현실 저편의 세계를 통해서만 박봉우는 분단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4.2. 자아의 분열, 정신병원의 세계

박봉우 시에서 정신질환의 징후와 그것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의 병적 징후가 4·19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그의 사회역사적 윤리의식과 그의 정신질환의 상관성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집 『사월의 화요일』에 수록된 「소묘」 연작은 그러한 상관성을 읽어내는데 부족하지 않다. “병원의 아침은/건강한 신문이/기다려진다.//편지도/얼굴들도/마음 터놓고 찾아오지 못하는/정신병동엔/그리움만 머금은다.”(「소묘 26」)처럼 “건강한 신문이/기다려”지는 사회역사적 윤리와 “마음 터놓고 찾아오지 못하는/정신병동”의 대비를 통해 박봉우의 병적 긴장이 사회역사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임동확은 박봉우가 자신의 정신질환을 분명 자각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몸부림하면서/광상의 노래를 불러야 할” 어떤 소명감을 가졌던 시인이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정신병은 일종의 시인적 광기의 산물 내지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²³⁾ 그러나 전주 시기 박봉우에게 정신질환은 시인적 광기보다는 자의식이 결여된 상태에 가까웠다. 이는 생활인 되기에 실패한 것과 맞물려 있다. 「소묘」 연작에서도 발견되지만, 전주 시기 박봉우의 시에는 종교적인 의미의 절대적 윤리, 즉 신을 향한 기원과 간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박봉우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썼던 「석상의 노래」, 「촛불의 노래」, 「마리아상」 등에서 그러한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박봉우의 윤리의식이 기본적으로 유토피아적 비전²⁴⁾에 근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유토피아가 아무 데도 없는 곳(no-place)라는 점에서, 박봉우는 본질적

23) 임동확, 앞의 글, 457쪽.

24) 위의 글, 442쪽.

으로 현실 생활이 결핍된 주체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정신질환은 박봉우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증상이자 징후가 된다.

정신병원에 피는 창백한 지성의 분노는 흰머리가 나도록 아껴 두고 싶은 것들이었다.

백의의 여인에게 연필을 쥐이면서 어머니가 사다 준 그 노트 위에 나의 영혼에서 우러난 하나도 거짓 없는 나의 생명체는 순수한 피어린 사월의 순정에 불타오른 절정의 것이라고 믿으며,

정신병자의 징역 시간에 모가지가, 모가지가, 모가지가 아프도록 외쳤던 시인공화국이여! 더러는 옥토 위에 떨어지는 눈물이고저.

사랑이 가기 전에 외쳤던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의 달밤이 싫어, 아아 감격 어린 황토 니뻐를 갈고 모든 갈레조각들이 바다로! 바다로! 가기를 기원했던 나의 정신혁명이여!

나의 어머니의 무덤에 이른 봄의 진달래꽃이 피듯 정신병원에 피는 창백한 지성의 분노여.

— 「정신병원에 피는 창백」 전문

박봉우의 시 가운데 위 시만큼 침예한 자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창백, 지성, 분노, 영혼, 절정, 무덤 같은 시어들과 어머니, 순수, 순정, 눈물, 봄, 진달래꽃 같은 시어들이 충돌하면서 이 시는 정신병자의 자의식과 시인의 자의식을 교란하고 있다. 이러한 교란의 시간을 박봉우는 ‘징역 시간’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본다면 정신병원은 박봉우에게 혁명의 시발점이 되고, 그곳에서 그는 ‘모가지가, 모가지가, 모가지가 아프도록 외’치며 혁명에 돌입했다. 박봉우는 그러한 혁명적 자의식을 ‘창백한 지성의 분노’로 이미지화하는데, 그 분노의 일면에는 ‘옥토 위에 떨어지는 눈물이고저’ 하는

희생양 의식도 담겨 있다. 이러한 희생양 의식은 박봉우 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피 먹은 나비’ 이미지도 그 사례가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희생양화하면서 교란되는 박봉우의 자의식은 ‘정신혁명’을 향한 동력이 된다. 혁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한 곳은 ‘시인공화국’인데, 박봉우가 그리고 있는 시인공화국의 모습은 “시를 모르고 어떻게/정치를 하십니까/양심이 있다면 물러나시오/시인을 천대하는 나라/무엇입니까/시가 있고 그림이 있고/음악을 아는 나라들의/정치는 아름답습니다”(「시인을 아끼는 나라」)에서 알 수 있듯, 아름다운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박봉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라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극복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봉우는 끊임없이 “우리는 언제/백두산을 오르리/(…중략…)/목타는 민중들 앞에/시인들은 무엇하는가/시인들은 무엇하는가”(「시인들은 무엇하는가」)라고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박봉우는 결국 ‘육토에 떨어지는 눈물’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혁명을 수행할만한 자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모두들 가거라/시인은 빛뿐이다/미친놈의 세상/나는 정신병원에나 가 있겠다”(「뿌리치고 온 서울」)에서 보듯, 박봉우는 혁명 주체로서의 시인이 결국은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는 죄의식을 동반하는데, “눈물 한 방울에/나의 죄는 있다/눈물 한 방울에/나의 심오한 죄는 있다”(「이 세상의 죄인」)라는 죄의식은 일차적으로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에 실패했다는 자의식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자의식의 결핍은 정신병원에서의 징역 시간에 “외로운 벽에서/무수한 그림을 그리면서/잠에 취하고 싶”(「병실」)어하거나, “자장가를 부르고 싶은/여기는 병실/(…중략…)/혁명과도 같은 밤에/나는 잠을 자려고/온갖 힘을 다 하”(「자장가」)는 방식으로 현실 저편으로 도피하고자 한다. 이 또한 그의 자의식이 얼마나 하이포적인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전주 시기 박봉우 시에는 생활인의 윤리도 혁명적인 자의식도 결핍된 모습을 보이지만, 이 결핍의 원인이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의 과잉에 따른 반작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박봉우에게 하이퍼(hyper)적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이면에는 하이포(hypo)적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던

것이다. 박봉우는 이 두 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과잉 또는 결핍의 극단으로 치닫고 말았다. 그 이유가 그의 정신질환에 있는 아니면 가난한 살림살이에 있는 그것은 중요해보이지 않는다. 박봉우는 언제나 혁명을 꿈꾸었으며, 그 혁명의 주체는 시인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다만 그는 혁명의 길을 잊었을 뿐이다. 그렇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나는/갈 길을/잊었”(『해 저무는 벌판에서』)던 것이다. 그의 시가 하이퍼와 하이포의 극단을 지향한 것은 잊어버린 혁명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5. 나오며

박봉우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전주에서 살았지만, 어느 의미에서 보면 그는 결코 전주에 소속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전주에 머물렀지만 그의 시선은 전주 너머를 향해 있었다. 일차적으로 그곳은 휴전선이었고, 이차적으로는 휴전선의 또 다른 형상인 광주였다. 이렇게 몸과 의식이 분열된 현상은 그의 시를 통해 형상화되었는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의 분열이 한편으로는 과잉된 윤리의식으로, 또 다른 면에서는 결핍된 자의식으로서의 방향성을 띠는 점이다. 박봉우의 전주 시기 시가 병리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 과잉과 결핍의 극단을 통한 세계인식의 태도는 그 자체로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박봉우 시의 병리적인 미의식은 현실 세계 저편을 향한 낭만적 동경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봉우 시의 과잉된 윤리는 그의 등단작에서부터 줄곧 이어져온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이다. 그는 분단된 현실과 그 현실을 살아가는 민족 주체를 ‘철조망’과 ‘나비’의 이미지로 상징하고, 전주 시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그 구도를 잃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1980년의 광주를 겪은 후, 광주에서 또 하나의 휴전선을 목격한다. 휴전선이 민족적 분단을 야기했다면, 광주는 박봉우 개인의 존재론적 분열의 계기가 되었다. 그가 광주에 가지 못하고 전주에서 삶을 마감한 것은 분단과 분열의 비극적 상징이 되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러한

기저에는 그의 정신질환이 깔려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의 정신질환은 과잉된 그의 사회역사적 윤리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자 같은 것이다. 박봉우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운 ‘피 먹은 나비’는 그의 과잉된 윤리의식의 구체적인 형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잉된 윤리를 감당하기에는 박봉우의 자의식은 왜소하기만 했다. 윤리가 이념성을 띤다는 점에서, 그 이념은 실제 생활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박봉우의 생활은 과잉된 자신의 윤리의식을 지탱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었다. 실제로 전주 시기의 박봉우는 자폐적인 상태에서 살았으며, 정신병원을 들고나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간신히 지탱되었던 그의 생활은 아내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버렸다. 아내의 죽음은 박봉우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했다. 결국 생활인 되기에 실패한 후 그는 징역의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박봉우는 언제나 혁명을 꿈꾸었는데, 그에게 혁명이란 현실 너머를 동경하는 일이었다. 그가 신화의 세계를 끌어낸 것은 그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듯 전주 시기 박봉우는 정상성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시적 윤리를 드러냈다. 사회역사적 의식처럼 외부로 향한 발산적인 윤리는 과잉된 모습을 보인 반면, 생활인으로서의 자의식 같은 내부로 수렴되는 윤리는 상당히 결핍되어 있었다. 박봉우 시의 이러한 병리적 미의식은 그의 정신질환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가 고등학생 시절 썼던 작품들의 주조음으로 드러나는 낭만성을 감안하면, 박봉우의 시에는 현실 세계보다는 ‘다른 세계’를 낭만적으로 동경하는 그의 본성이 깊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박봉우의 병리적 미의식은 그의 낭만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낭만성이 분열된 현실 조건을 극복/도피하기 위한 방법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 박봉우, 『딸의 손을 잡고』, 사사연, 1987.
_____, 『황지의 풀잎』, 창작과비평사, 1993.
임동화 엮음, 『박봉우 시전집』, 현대문학, 2009.

2. 논저

- 김경복, 「박봉우 시의 실존 공간 연구」, 『인문논총』 제32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김정현, 「박봉우 시에 나타난 경계의 자기서사와 저항 윤리 연구」, 『서강인문논총』 47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김효신, 「한국 현대시의 병리적 현상 연구: 한하운, 김광섭, 박봉우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97.
노용무, 「박봉우 시의 ‘나비’ 이미지 연구」, 『어문론집』 28, 중앙어문학회, 2000.
백학기, 『가슴에 남아 있는 미처 하지 못한 말』, 도서출판 더클, 2015.
전동진, 「박봉우 시의 텍스트사회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_____, 「시인 대통령, 대통령 시인의 ‘홀로 한 하야(下野)’ - ‘황지의 풀잎’ 박봉우 시인」, 무등일보, 2016. 10. 16.
전봉건, “박봉우 시집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동아일보, 1960. 2. 6.
정영진, 「중립의 감각·생명·자유: 1950·1960년대 박봉우 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조르주 깡길렘,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인간사랑, 1996.
최명표, 『전북 지역 시문학 연구』, 청동거울, 2007.
_____, 「최명표의 전북 작고 문인을 찾아서(30)-「휴전선」의 시인, 박봉우」, 전북일보, 2011. 9. 26.

【Abstracts】

A Study of Pathological Aesthetics in Park Bong-woo's Poetry in Jeonju Period

Moon, Shin

This article examines the pathological aspects of excessiv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lack of ethical consciousness in the poetry of Park Bong-woo's Jeonju period. Poems that reveal hyper aesthetics are works related to historical epistemology, and poems that show hypo are related to his ontological problem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Park Bong-woo has been raising the issue of division since the early times, embodying the image of socio-historical ethics into the image of blood at the border symbolized by the DMZ(휴전선). However, Park Bong-woo's self-consciousness was insufficient to handle hyper ethics. Although socio-historical ethics should be derived from life, Park's life lacked the ethics of the living people to support his hyper of ethics. Indeed, Park Bong-woo, who lived in Jeonju, lived in an autistic state.

In this way, Park Bong-woo's poetry shows his pathological symptoms in a way that hyper or hypo short of normality. In this process, Park Bong-woo shows a romantic admiration for the "other world" rather than the real world. In this sense, Park's pathological aesthetics are related to his romantic attitude.

key words : Park Bong-woo , Hyper, Hypo, Pathological Aesthetic,
Jeonju

이 논문은 2019년 10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